광산경제백신회의 '국정목표 실천' 장려상

광주 광산구가 지난 17일 전북 완주 자치인재원에서 열린 '2020년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정부 5대 국정목표인 국민주권·국민성장·포용사회·분권발전·평화번영을 실현한 전국 지자체의 사업·정책 우수사례를 확산·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는 이날 '국민성장' 분야에 '광산경제백신회의'를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산경제백신회의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4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지역 44개 민관산학이 발족한 비상 경제 대응 거버넌스다. 이 회의는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긴급구호 금융지원, 산업단지 기업지원, 소상공인 기 살리기, 경제 활력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줬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극복 '금 모으기' 운동에서 착안한 광산경제백신 펀딩 캠페인, 지역기업 우체국 쇼핑몰 광산브랜드관 입점 지원을 비롯해 승차구매 로컬마켓 개최, 1% 희망대출 시행, 사장님 활력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냉방비 지원 등 지금까지 총 12탄의 '경제백신'을 처방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광산경제백신회의는 코로나19 발 경제 위기를 지역 거버넌스가 극복해내는 전국적 흐름을 선도했고, 다양한 경제백신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도왔다"며 "수상의 영예를 거버넌스와 협업에 참여한 모든 기관·단체에 돌린다"고 말했다. /윤영봉 기자

"빅데이터 기반 영농으로 농가소득 향상"

전남농기원 조경철 연구사

2020 한국품질경영학회서 '우수논문상' 수상
토마토 불량·발생에 미치는 환경요인 주제 발표

조경철 전남농업기술원 연구사가 최근 2020년 한국품질경영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조 연구사는 '토마토 불량과 발생에 미치는 환경요인 분석'이라는 주제 논문을 발표해 품질경영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발표 논문에 따르면, 4차 산업의 확대와 스마트온실 정밀재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전국 시설채소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은 시설 토마토를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으나, 토마토(반촉성) 생산량이 2019년도 10a 당 6,140kg로 2018년도 8,632kg 대비 약 28.9% 감소하고 있다.

조 연구사는 이러한 토마토 생산량이 감소한 원인을 찾기 위해 전남 토마토 농가의 빅데이터(환경·생육·농작업 정보) 수집에 나섰다.

작년 8월부터 토마토 재배기술 수준이 비슷한 13농가를 대상으로 매주 1회 현장을 방문해 생육조사(초장, 엽수, 마디굵기, 화방높이 등)와 환경정보(온도, 습도, 일사량, 이산화탄소농도 등)를 분석했다.

수집 자료 분석 결과 주·야간 온도차와 습도조건을 조절해 불량과 발생을 줄이고 상품화율을 높인다면 10a 당 670만원의 소득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 연구사는 "11~12월과 2~4월은 주·야간의 온도차가 심하고 지상부와 지하부가 건조해진다"며 "이러한 환경이 지속되면 배지내 염류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양분의 길항작용으로 석회의 흡수가 억제돼 병해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영농연구와 더불어 조 연구사는 지난 2017년부터 농식품 빅데이터 조사·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몰두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국내 실업률 증가와 청년층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빅데이터 조사요원 100여명을 채용,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조사요원들은 딸기 등 17작목 274농가에서 환경·생육·이미지 정보를 수집해, '농식품 빅데이터 댐'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 연구사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남 시설 토마토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시설 토마토 환경관리 등 영농의사결정 기준 제시 및 현장컨설팅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길용현 기자

제36회 무등미술대전 개막·시상식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서 대상 8명·우수상 23명 등 수상

제36회 무등미술대전 개막과 시상식이 18일 오후 2시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정명기(한국화), 윤석순(서양화), 최금자(문인화), 김수미(수채화) 등 대상 수상작가 8명과 우수상 23명 등이 수상했다.

개막식과 테이프 커팅에는 박재순 광주전남발전협의회장과 노의웅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조영실 심사위원장, 민영돈 조선대학교 총장, 최 일 동신대학교 총장, 김선남 전남매일 대표이사, 김중채 서재필박사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예년보다 늦게 열린 올해 무등미술대전은 전국의 공모전 출품수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전국에서 1,500여점이 출품돼 그 위상을 증명했다.

박재순 광주전남발전협의회장은 "무등미술대전은 1985년 지방미술문화의 발전과 전국 미술인 등용문의 기치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4만여점이 넘는 작품이 출품됐으며, 2만여점의 입상작을 배출했다"며 "전국 최고의 민전답게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로 앞으로도 더 발전해 역량있는 공모전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

전남관광재단, MICE 전문인력 66명 양성

전남관광재단은 18일 "MICE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한 '전남 뉴노멀 MICE 아카데미'를 통해 수료생 66명을 배출하고 2건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전남 뉴노멀 MICE 아카데미는 광주·전남 대학생들과 고부가가치 MICE 산업으로의 사업 확장을 준비하는 지역 여행사들이 참여해 유수의 강사진으로 구성된 교육과 유니크 베뉴 발굴 서포터즈 운영, 소규모 컨벤션 개최 과정으로 운영됐다.

8개 팀으로 구성된 유니크 베뉴 발굴 서포터즈는 전남의 특색을 반영한 중·소규모 회의 시설을 직접 선정하고 조사해 나주 3917마중 등 총 8개의 시설을 발굴했다. 선정된 자료는 향후 2021년 한국관광공사 유니크 베뉴 선정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전남 뉴노멀 MICE 아카데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관광 기반 구축과 전략을 마련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MICE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광주시장애인체육회 '핸드인핸드 캠페인' 동참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지난 1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돕기 위한 '핸드인핸드(Hand in Hand) 캠페인'에 동참했다.

'핸드인핸드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돕기 위해 사회적기업 연구원에서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상품몰에서 제품을 구매해 다음 참여자에게 전달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의 지목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아름다운 릴레이 캠페인의 다음 참여자로 3개구(북구, 남구, 서구)장애인체육회를 지목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상품몰(e-store 36.5+)을 통해 마음을 담은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서용규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갔으면 좋겠다"며 "광주시장애인체육회도 위기극복을 위한 공적역할 이행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강진자비원 박정애 원장 국민포장 수상

아동권익보호·복지후생 공로

강진자비원 박정애 원장이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18일 강진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사회 곳곳에서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 및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국민훈장(2명), 국민포장(2명)을 포함, 총 314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유공자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강진자비원 박정애 원장은 1973년 아동복지시설 보육사로 입사해 30여 년 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했다.

2004년 이후 시설장으로 취임해 아동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후원자 발굴, 아동권익보호 및 아동복지후생에 16년 동안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박 원장은 "국민포장을 수여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맡은 역할에 충실하며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전남여성가족재단, 가족친화경영 포럼

전남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는 최근 여수 예술랜드 대회의실에서 '가족친화경영으로 여성도 일하기 좋은 전남 만들기'를 주제로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남지역 중소·영세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시퇴근, 유연근무제 확대 등 가족친화경영을 통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하유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부 부장의 '가족친화경영 및 가족친화제도'와 김미숙 전남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팀 연구원의 '전남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실태'에 대한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이어 정진철 교수(조선대 경영학부)를 좌장으로 '전남 중소·영세업체의 가족친화 경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안경주 원장(전남여성가족대단), 양정하 이사(코리아노무법인), 김덕순 이사(TINY GIANT 대표, ㈜벌교꼬막), 노미숙 이사((주)맛나푸드), 황은아 이사((주)미래지반연구소)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정근산 기자

결혼 ▲조광훈(전 호남상호신용금고)·고영옥씨 아들 웅전군, 제양호·박정규씨 딸 지윤양=22일(일) 오후 1시30분 서울 중구 인형동2가 PJ호텔 1층 뮤즈홀.

▲주상민·이정임씨 아들 성호군, 조백관(옛 이름 형용, 두일종합건설 대표)·강영주씨 딸 안겸양=28일(토) 낮 12시30분 서울 중구 인형동2가 PJ호텔 4층 헤스티아홀

모집 ▲찾아가는 평생교육 배달강좌 모집=모집기간 31일까지(선착순마감), 운영기간:20일~12월15일, 대상:10인 이상의 지역주민(교육소외계층은 5인이상 구성도 허용 *65세이상노인, 장애인, 결혼이민자, 새터민 등) 신청:방문제출, 문의·접수:광주 서구 평생학습관 062-350-4973.

알림 ▲사이버캐슬PC방 개업(대표 조건호)=24일(화) 오후 7시 광주시 광산구 월계로 50(월계동 781-1) 1층 062-971-1259.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니코틴·인터넷·약물·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 무료상담=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 미혼모 상담=미혼으로 임신해 무료 산전 후 진료 및 분만 혜택과 상담(입양, 양육) 서비스 제공, 24시간 상담가능 080-733-1313, 222-9349.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 5시 무료상담 654-3802.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법률구조. 면접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광주 동구 준법로 3번지.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영)=자살! 숨기지 마세요! 주위사람과 대화하세요! 정신건강 및 자살위기 상담 전화 1577-0199.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지지서비스(주 5일 운영) 회원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실질환자에 대한사례 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233-0468.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소송 분쟁시 비용지원. 1577-8339, 국번없이 132.